

우즈베키스탄 외국인투자환경 동향

1. 수출입 동향

□ 중국과의 교역 증가 규모 증가

- 우즈베키스탄 최대 수출시장은 여전히 러시아로 2009년에도 전년 대비 15.1% 증가한 2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.
- 우즈벡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국가는 중국(89.9%), 스위스(53.6%), 아프가니스탄(35.3%), 카자흐스탄(17.7%)등임.
- 중국(24.6%), 한국(7.9%)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로 부터의 수입이 감소세를 나타냈음. 한국은 러시아, 중국에 이은 우즈벡 제3위 수입 대상국임.

<표 1> 우즈벡의 국가별 수출현황

단위: 백만 달러, %

	2007		2008		2009	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총수출	8,991.5	40.7	11,493.3	28.7	11,771.3	2.4
CIS	4,273.0	59.1	3,926.6	-6.1	3,921.3	-0.1
카자흐스탄	661.7	117.2	436.4	-70.5	513.7	17.7
러시아	2,473.0	48.8	1,961.8	-19.7	2,257.2	15.1
우크라이나	630.0	74.4	970.8	55.4	691.1	-28.8
기타CIS	508.3	42.0	557.6	15.2	459.3	-17.6

	2007		2008		2009	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비 CIS	4,718.5	27.4	7,566.7	60.3	7,850.0	3.7
벨기에	19.4	-17.1	25.0	28.9	22.3	-10.8
영국	103.3	-44.0	153.8	48.5	110.8	-28.0
이란	554.1	-10.8	536.9	3.2	538.0	0.2
한국	69.7	55.6	91.6	31.4	102.6	12.0
네덜란드	26.6	33.7	29.2	9.8	12.3	-57.9
미국	85.6	-28.1	211.2	146.5	146.6	-30.6
터키	590.5	2.4	534.3	-9.5	406.9	-23.8
스위스	380.4	1,111.5	1,032.9	171.5	1,586.1	53.6
아프가니스탄	331.4	104.9	520.3	60.1	703.8	35.3
중국	314.4	-21.9	257.5	-18.1	489.0	89.9
기타 비CIS	2,243.1	43.3	4,174.0	85.5	3,731.6	-10.6

자료: 우즈벡 통계위원회.

<표 2>

우즈벡의 국가별 수입현황

단위: 백만 달러, %

	2007		2008		2009	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총수입	5,235.6	9.5	9,704.0	43.3	9,438.3	-2.7
CIS	2,721.8	32.1	4,732.9	17.7	4,084.9	-13.7
카자흐스탄	532.2	24.9	1,220.9	-15.0	793.5	-35.0
러시아	1,565.1	27.4	2,274.2	19.0	2,186.3	-3.9
우크라이나	430.0	61.6	960.3	123.0	835.1	-14.0
기타CIS	194.5	39.2	277.5	42.0	270.0	-3.0
비 CIS	2,513.8	-7.6	4,971.1	71.1	5,353.4	7.7
영국	59.5	-24.3	73.4	19.0	62.9	-14.3
독일	252.3	-18.7	455.1	58.5	420.4	-7.6

		2007		2008		2009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	중국	434.2	15.0	1,253.5	139.4	1,562.4	24.6
	한국	514.1	-21.5	1,043.7	87.7	1,125.8	7.9
	미국	110.2	-14.2	193.4	60.3	221.1	14.3
	터키	163.8	-5.3	300.0	56.2	267.2	-10.9
	프랑스	56.6	16.2	89.8	25.1	70.3	-21.7
	일본	50.3	11.3	151.9	191.3	124.0	-18.4
	기타 비CIS	872.8	-4.5	1,410.3	34.7	1,499.3	6.3

자료: 우즈벡 통계위원회.

#### □ 기계·식품류 제외한 전부문에서 수입 감소

- 에너지 수출액은 40억 달러로 총수출액의 34%를 점유하고 있으나, 2009년도 에너지(가스) 수출 증가율은 전년의 60.6%보다는 둔화된 42.4%를 기록함.
- 국제시장에서의 수요 감소로 원면은 -5.1%, 철/비철금속은 -27.7% 감소한 반면, 식품류는 39%의 증가세를 보임. 기계/설비류는 전년 대비 -61.6% 감소하였는데, 이는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의 대 러시아 수출 감소에 기인함.
  - 2009년 대 러시아 자동차 수출은 5만 1,400대를 기록,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함.
- 산업재인 기계, 설비류가 총수입액의 56%를 차지하였으며, 수입금액은 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% 증가한 반면, 식품류(5.5% 증가)를 제외한 화학/고무제품, 에너지연료, 철/비철금속 등 수입은 10~20% 이상 감소를 보임.

&lt;표 3&gt;

## 우즈베크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

단위: 백만 달러, %

	2007년		2008년		2009년	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원면	1,123.9	2.8	1,068.9	-5.2	1,012.3	-5.1
식품류	764.3	50.7	517.2	-33.4	706.3	39.0
화학/플라스틱	611.4	72.4	643.6	6.0	588.6	-9.1
에너지 연료	1,816.3	116.7	2,838.8	60.6	4,025.8	42.2
철/비철금속	1,034.0	25.4	804.5	-21.7	588.6	-27.7
기계/설비류	935.1	44.3	873.5	-7.2	341.4	-61.6
서비스	962.1	24.6	1,195.3	25.1	1,035.9	-14.1
기타	1,744.4	29.1	3,551.4	103.7	3,472.5	-2.0
총수출	8,991.5	40.7	11,493.3	28.7	11,771.3	2.4

자료: 우즈베크 통계위원회.

&lt;표 4&gt;

## 우즈베크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

단위: 백만 달러, %

	2007		2008		2009	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식품류	413.6	12.7	805.4	47.0	849.4	5.5
화학/고무제품	774.9	17.0	1125.7	25.9	1047.7	-7.3
에너지 연료	172.8	-12.3	446.4	158.0	330.3	-27.5
철/비철금속	434.6	36.4	747.2	71.0	594.6	-19.7
기계/설비류	2439.8	8.5	5084.9	108.0	5332.6	5.0
서비스	387.4	-3.2	427.0	10.4	415.3	-3.3
기타	612.6	4.4	1067.4	34.8	868.3	-18.4
총수입	5235.6	9.5	9704.0	43.3	9438.3	-2.7

자료: 우즈베크 통계위원회.

## 2. 금융시장 동향

### 가. 환율

#### □ 2010년에도 현지화 평가절하 추세 지속

- 상반기중 솜화 평가절하 폭은 월 10~16솜 수준

<표 5> 중앙은행(CBU) 기준 환율 추이

단위: 솜/달러

구분	2009. 1월	2009. 6월	2010. 1월	2010. 6월
환율(증감)	1,393	1,483.5(+90.5)	1,511.4(+27.9)	1,578.87(+67.47)

- 한편, 2010년 상반기 중 암시장 환율은 1달러당 2,000~2,200솜 수준을 유지함.

### 나. 환전

#### □ 외화환전 여건 악화

- 외화는 중앙은행(CBU)이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외화가 필요한 기업들은 그 용도를 명시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중앙은행에 환전을 신청하게 됨.
  - 중앙은행은 환전신청 기업의 업종과 국민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환전하여 주고 있음.
- 최근 외화환전 소요기간은 2009년 대비 1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
&lt;표 6&gt; 업종별 환전 소요기간

구 분	외화환전 소요기간
수출기업 및 수입대체기업	6개월 이내
일 반 제 조 업	12개월 이내
무 역 회 사 ( 수 입 업 체 )	1년 2개월
기 타	자동차 부품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특별히 인정하는 산업은 즉시 환전 가능

#### □ 외화환전의 어려움은 신용장 개설의 장애물로 작용

- 우즈베키스탄 은행들은 거래기업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장 (통상 1년 이하 Usance)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, 거래기업에게 해당금액의 현지화(UZS) 예치 및 외화환전을 신청하게 한 후 관련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있음.
- 아울러 은행들은 해당기업의 업종 등을 감안하여 L/C 결제에 필요한 외화 환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L/C를 개설하여 주고 있음. 이에 따라 무역업체 등 외화환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업들은 수입 L/C 개설 등 은행거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#### □ 현지 은행은 거래기업의 적기 환전가능 여부를 중점 심사

- 은행이 L/C 개설 후, 수출국 소재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장금액의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신용장 개설의뢰인(수입업자)이 외화환전을 못하여 해당금액을 은행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신용장개설은행이 대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.
- 이 경우, 대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이 추후 환전을 받아주지 않고 있어, 현지 은행들은 거래기업의 적기 환전가능 여부를 중점 심사하고 있는 실정임.

### 3. 외국인투자 동향

#### 가. 외국인 투자동향

□ 2009년도 대 우즈벡 총외국인투자액은 전년 대비 56% 증가

- 총외국인투자액은 2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이중 외국인직접투자액(FDI)이 24억 6천만 달러에 달함.
- 2009년도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전년에 비해 73.2% 증가하였으나, 우즈베키스탄정부는 2010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예상치를 2009년도 보다 -2% 정도 적은 24억 3천만 달러로 설정함.

<표 7> 우즈베키스탄 연도별 외국인 투자현황

단위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 <sup>e</sup>
총 외국인 투자액	895.7	1,285.9	1,882.1	2,941.68	2,984.56
우즈벡 정부보증 차관	211.9	272.3	458.8	476.99	554.94
외국인직접투자(FDI)	683.8	1,013.6	1,423.3	2,464.69	2,429.62

자료: 우즈벡 대외경제부.

#### 나. 산업별 투자 현황

□ 광물 및 에너지, 석유 가스 분야가 전체 외국인투자의 66% 차지

- 광물, 에너지, 유가스, 화학, 금속 부문이 20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6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정보통신 분야, 농업 및 수자원 분야가 각각 13%, 2%의 투자 점유율을 나타냄.

## &lt;표 8&gt; 우즈베키스탄 산업별 투자 현황

단위: 백만 달러

산업 분야	2009년 투자
외국인투자 총액	2,941.68
광물, 에너지, 유가스, 화학, 금속	1,959.16
정보 시스템 및 통신, IT	382.42
건설 및 건축, 운송	47.07
금융, 경제이슈 및 대외 경제 관계	132.38
교육, 의료, 사회보장	123.55
농업 및 수자원, 소비재	82.37
기타	214.74

자료: 우즈벡 대외경제부.

【타슈켄트 사무소 제공】